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서아시아인의 통일과 여러 제국]

01. 아시리아(기원전 671 ~ 기원전 609)

- 수도 니네베(Nineveh)
-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 통일
- 중앙 집권 통치 실시
: 군용 도로와 역전제(驛傳制) 정비
: 전국을 주(州)로 나누고 총독 파견
- 니네베 왕립 도서관 건립
- 지구라트 건설
- 강압적인 통치 방식
: 신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니네베를 점령(기원전 612)한 이후 멸망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0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기원전 559 ~ 기원전 330)

- 수도 수사(Susa)
- 키루스 2세(㉔, 재위 기원전 559 ~ 기원전 529)
: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
: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 포용 정책 실시(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

나는 키루스이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 신(아후라 마즈다)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
- 키루스의 칙령(기원전 539)

- 캄비세스 2세(㉕, 재위 기원전 529 ~ 기원전 522)
: 이집트 정복
- 다리우스 1세(㉖, 재위 기원전 522 ~ 기원전 486)
: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토 확보
: 반란 평정, 정복 전쟁을 통해 그리스 식민지 정복
: 페르세폴리스 건설(페르시아의 도시, 기원전 518 ~)
: 20여 개 속주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감찰 관리(왕의 눈·왕의 귀)를 파견해 총독 감시
: 왕의 길(수사 ~ 사르디스) 건설, 역참(驛站) 정비
: 화폐와 도량형 정비
: 운하 최초 건설(지중해 ~ 홍해)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 마라톤 전투 패배(기원전 490)
•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와 신봉
• 속주 총독들의 반란, 지배층의 분열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이소스 전투)



<키루스 원통(뺨기 문자)>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서아시아의 통일과 여러 제국]

03. 박트리아= 대하국, 기원전 246 ~ 기원전 138)

-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소그디아나(Sogdiana, 현 우즈베키스탄 지역) 지배
- 중앙아시아, 인도 북서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 전파

04. 파르티아= 안식국, 기원전 247 ~ 기원후 226)

- 수도 크테시폰(Ctesiphon)
-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 정복지 주민들을 관대하게 통치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 계승,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
- 로마 ~ 인도 ~ 한(漢)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
- 로마 제국, 인도의 쿠산 왕조 등과의 경쟁으로 쇠약 →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

05. 사산 왕조 페르시아(224 ~ 651)

- 수도 크테시폰(Ctesiphon)
-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건 이란계 민족이 건국
- 메소포타미아 ~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 샤푸르 1세, 로마와 경쟁하며 영토 확장

: 쿠산 왕조 침략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지방에 총독 파견)

- 중계 무역으로 번영

: 동서 교역의 요충지를 차지한 지리적 이점

- 페르시아어, 아랍어, 쉐기 문자 사용

-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 경전 『젠드아베스타』 편찬

- 마니교 등장과 탄압

: 조로아스터교, 그리스교, 불교 등 융합

: 현세 부정,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

: 세속화가 진행되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

: 이단으로 탄압 →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래

- 국제적 성격의 문화

: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문화 융합

- 건축과 공예

: 다양한 건축 양식이 결합된 건축술 발달

: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 발달

: 로마, 인도, 한반도, 일본까지 전파

-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왕실의 내분

: 이슬람 세력(사라센)의 침입으로 멸망(651)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



〈페르시아와 신라의 물병〉



▣ 유럽 각국에 전시된 서아시아 고대 유물



아시리아의 라마스상(대영 박물관)



페르가몬 출토 유물(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수사 궁전 출토 타일(루브르 박물관)

▣ 조로아스터교

-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정성 들여 부지런히 땅에 씨 뿌리는 자가 수천 번 기도하여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한 종교적 결실을 얻는다. - **조로아스터**
- 조로아스터는 자라투스트라의 그리스 식 발음인데, 20세경에 종교 생활에 입문하여 30세경에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고 한다. **불을 신성시하여 배화교(拜火敎)라고도 불렀으며 중국에는 현교(祆敎)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구세주의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유럽어족은 불을 신성시하여 신에게 제사드릴 때에는 불을 피워 재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 역시 인도·유럽어족인 아리아인들의 불을 신성시하는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전 『아베스타(Avesta)』에 의하면 세계 역사는 선·악 양신의 투쟁 과정이며, 인간은 선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믿음으로써 악신인 아리만(Ahriman)을 이 세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악 양신의 싸움은 선신의 승리로 끝나며,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선신을 믿은 자는 천국에, 악신 편을 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나 최종적으로는 선신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된다고 생각하였다.**

① 기원전 7세기경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가 창시, ② 광명의 선신 아후라 마즈다와 암흑의 신 아리만과의 투쟁에서 선신이 승리한다는 **이원론적 종교**, ③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대신 야외에 성화단(聖火壇)을 만들어 예배, ④ 세계 구원, **최후의 심판**, 사자(死者)의 부활, **구세주 출현** 등을 신봉

▣ 『아베스타(Avesta)』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으로 아베스타어로 쓰여 있으며, 기원후 3세기경에 결집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 아후라 마즈다 또는 그의 제령(諸靈)이 예언자 조로아스터에게 계시한 것으로, 우주의 창조, 법, 전례, 조로아스터의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베스타’란 페르시아어로 지식을 의미한다.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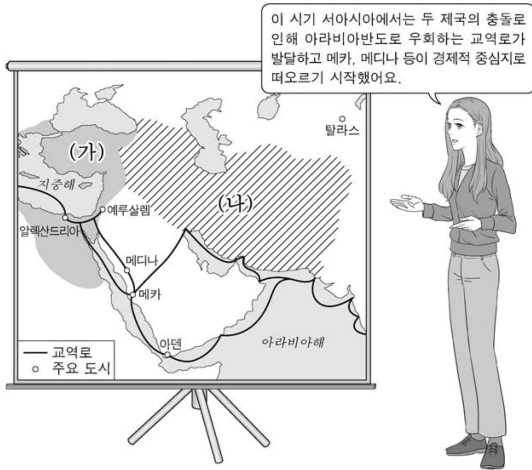
- ① ()는 기원전 7세기에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는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 ③ ()는 전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보내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 ④ ()는 페르시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번영하였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
- ⑤ ()는 224년 이란계 민족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나)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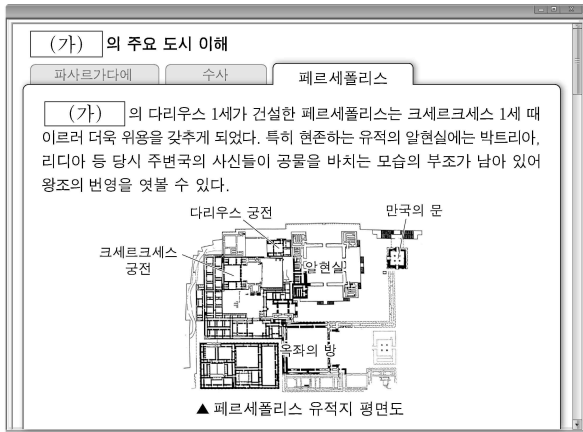


- ① (가) -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다.
- ② (가) - 밀레트 제도를 운용하였다.
- ③ (나) -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다.
- ④ (나) -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
- ⑤ (가), (나) -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03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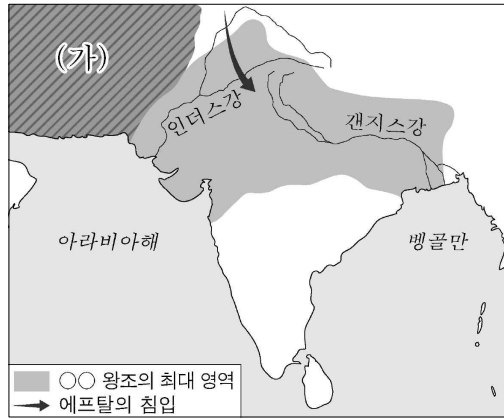


- ① 쿠산 왕조와 교역하였다.
- ②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④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되었다.
- 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02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①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
- ②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 ③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 ④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되었다.
- ⑤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04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가)의 국왕은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포위하고서, 성채에 제일 먼저 오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성공하는 병사가 없어 모두가 단념하고 있을 때, 히로이아데스라는 자가 홀로 리디아의 경비병이 배치되지 않은 절벽을 기어 오르자 다른 병사들도 따라 올라갔다. 수많은 병사들이 성채에 올라 마침내 사르디스가 함락되었고, 리디아는 멸망하였다.

- ①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 ② 아무르 인에 의해 세워졌다.
- ③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였다.
- ④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